

업계 화합 통한 제관산업 발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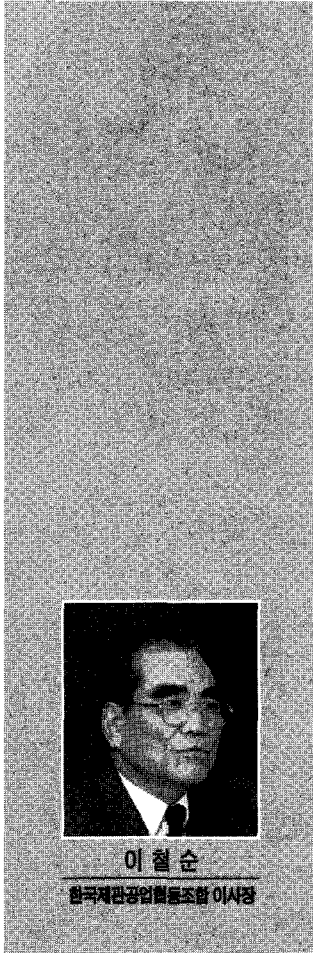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an Industry

금속포장용기의 역사는 200여년으로서 식품의 장기보전에 의한 인류의 식량난 해소와 건강복지에 지금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속캔 개념의 역사는 일본인이 수작업으로 통조림캔을 만들었다는 1892년을 기준하면 110년이 조금 넘지 않았나 본다.

그간 우리제관산업은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식, 음료 포장용기로서 뿐만 아니라 화학약품, 유지 등의 용기와 에어졸, 부탄 가스 등의 액화가스 용기로도 다양화 되었고 기술력과 연구개발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국내 포장산업 주요 5대 업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생산설비 과잉으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업계 전체의 수익성저하를 유발시키고 있는 내적인 구조적 문제와 원자재 가격 폭등에 의한 원가부담 가중 문제가 업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 하나라 보고 있다.

지난 해 우리 제관업계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인 석도강판 가격이 세차레나 잇따라 큰 폭 인상되어 업계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제관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내적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병행하여, 소비자 감가에 부응하고 Filler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과 수익성을 극대화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토록 해야 하며 타포장용기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금속캔의 특성을 상품개발과



이철순

한국제관공업협회장 이사장

수익성 극대화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

연결한 마케팅전략도 새로운 소비패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기존 사고를 뛰어넘는 원가절감 방안과 함께 동일 업종간이나 산학협동을 통해 전략상품에 전력하는 등 수익화 극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관산업은 그 특성상 장치산업으로서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음료캔 부분의 연구개발에 따른 투자는 수익성 전제에 따른 부담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하였음은 우리업계의 한계성이긴 하지만 국내 포장산업발전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정부지원도 검토 되었으면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포장산업진흥을 위하여 포장관련 전 업종에 대한 로드맵 작성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속에 주관 업체를 선정,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에 있고 우리조합도 이에 참여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포장산업 발전의 출발선은 포장업종을 이루고

있어 업계간의 결속과 화합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원가부담은 가중되고 기업환경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업계간 결속과 화합마저 와해된다면 업계발전을 위한 아무리 좋은 방향을 계획하고 제시한들 백약(百藥)이 무효(無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본다.

이러한 생각과 걱정이 우리 제관업계 뿐이 아닌 국내 포장산업 전 업종의 공통된 사항이고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포장업종별 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조합은 업계화합과 결속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포장산업발전을 위한 업종별 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기대해 본다. ko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